



긴 항해 속의 진주를 찾아서

- 「노인과 바다」를 읽고 -

이 근*

바다를 늘 곁에 두고 있는 나로서는 해양개척 및 친화라는 말이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보다 넓은 세계로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쉽어서 우연히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넓고 푸르게 펼쳐진 바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공간 속에 한 인간이 홀로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거대한 자연 속에서 혼자 꿈틀거리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자연 속에 있는 한 자신도 자연의 일부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노인과 바다」속의 주인공 공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물이다.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인공이 펼쳐가는 긴 항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소설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해양 개척”의지 및 친화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노인과 바다는 고기 한마리 잡지 못하고 84일을 바다에서 헤매는 한 늙은 쿠바의 어부, 즉 산티에고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침내 어느날 산티에고는 거대한 고기를 낚게 되고 밤과 낮이 바뀌는 동안, 삶과 죽음사이의 투쟁을 계속하며 끝내는 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상어떼들의 공격으로 결국엔 앙상한 뼈만 남긴채 마을로 돌아온다. 이처럼 간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헤밍웨이는 그것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노인과 바

* 해양체육학과

다」의 줄거리는 간단한 것이며 믿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나의 가슴 속 깊이 강렬한 동정과 경외를 자아내었다. 복잡한 등장인물과 스토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거나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작품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고 마치 내가 노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작가가 된 듯 하였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노인은 평범한 어부로서, 옛날의 비극에 나타난 주인공들처럼 사회적 신분체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대표적 인물은 아니다. 어느날 아침 일찍이 노를 젓는 배를 타고 그는 홀로 바다로 나간다. 첫날 정오가 되자 그는 거대한 마알린 한마리를 낚시로 잡는다. 이 물고기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이를 낮과 밤을 배 속에서 이리저리 방향도 없이 끌려 다닌다. 다시 삼일 채 되는 정오가 되어 그는 그 물고기를 수면으로 끌어 올려 작살로 잡는데 성공한다. 그 배에 신기에는 그 물고기가 너무 커서 밧줄로 배 옆에다 묶고서, 집으로 향하는 긴 항해를 위해 작은 돛을 세운다. 그러나 돌아오는 동안에 상어떼들이 그 고기를 조금씩 뜯어 먹는다. 그가 포구에 돌아왔을 때는 그 물고기는 뼈를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비록 주인공이 쓰러지고 근력이 다 되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는 못했지만 이 소설은 정복당하지 않는 대자연의 힘에 대항해서 승리가 가능한 투쟁의 이야기이다.

산티에고는 마알린과 투쟁하는 장면에서 마알린에 칼퀴를 꽂아놓고 고기가 도망칠 때 풀려나가는 낚시줄에 등과 양손바닥이 벗겨져 유혈(流血)이 되어도 통증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다. 산티에고에 대하여 설화자(說話者)는 <여하간 그는 통증을 인정치 않는다... 고통이란 인간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육체적 인내성과 관련이 되는 성격의 일면은 의지력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은 고기와 투쟁하면서 <고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잡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의지력을 과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산티에고는 고기와 고통을 거둬하면서도 그의 의지력은 추호도 감소되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절망하게끔 만들어 지지는 않았다. 인간은 소멸될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파괴되지는 않는다.>이는 불멸의 투지력에 대하여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태연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의지력이 있고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산티

에고는 원시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원시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산티에고의 해상생활에서 충분히 들 수 있다. <그는 남서쪽이 어디인가를 말해 줄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무역풍을 감지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면 되었다.> 그의 해상생활에서 뿐만아니라 그가 사는 환경에서도 원시적인 요소를 들 수 있다. 산티에고의 주택은 맨바닥 혹은 봉당으로 되어 있다. 산티에고가 맨발로 다녔다는 등등은 독자들에게 원시적인 생활을 연상케 한다. 위에서 예증한 것은 스토아 학파의 도덕률을 우주적 조화를 성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은 우주적 조화, 즉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징중의 하나로 서사적 은유를 들 수 있다. 만약 서사시적인 특징이 비극에 있어서 필수적 요건이라면, 주인공은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가 생각하는 목적에 전심전력(全心全力)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육체적 고통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주인공으로부터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외롭더라도…. 주인공은 건실한 삶을 누리고 있음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사고에서 장엄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장엄성은 서사시적 비극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평범한 어부이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긍심을 지닌 산티에고는 생존하기 위해서라든가 팔아서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를 죽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의 자긍심은 자기의 세계속에 있는 진정한 위치로부터 자기를 찾아내게 한다. 산티에고는 말하기를 “인간은 패배하도록 운명지워지지 않았다. 인간은 파멸될 수 있어도 결코 패배할 수 없다.”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점점 더 어려운 난간에 부딪치자 극단적 표현으로 나온다. “그들과 싸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비록 비운에 걸려 있어도 그는 결코 어부로서의 기술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이 큰 고기만을 잡으려고 하며 그리고 떳떳하게 잡으려고 한다. 이때 그는 마음속으로 패배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같은 패배는 곧 죽음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보통인데 그는 수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의지로서 자기의 목적의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는 단호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비록 극단적이지만 산티에고의 이러한 강인한 의지력이야말로 “해양개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산티에고가 믿어질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은 바로 그러한 강인한 의지력이 밑받침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늘어만 가는 인구, 고갈되어 가는 자원,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인들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만은 없다. 인구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식량과 자원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자 근원의 하나로 해양개척을 들 수 있다. 해양자원의 무궁 무진한 잠재력이야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큰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해양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가장 크고 광대한 공간이면서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다른 분야에 비해 자본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평범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더욱더 “해양개척”에 매력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우리들 앞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티에고처럼 자신의 일에 자긍심과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리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목적인 바에 대한 불굴의 정신력만 있다면 우리가 펼칠 고도의 세계는 언제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산티에고는 종교를 소유할 뿐더러 그의 종교관이 금욕주의적 종교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산티에고는 이렇게 독백하였다. ‘아마 나는 어부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그러나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을’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宿命론적인 풍취를 보여 주고 있다. 만약 산티에고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투철하고 강인한 의지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게 된다. 주인공의 이러한 친화사상이야말로 해양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선도적 지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산티에고와 마놀린의 관계는 서로 주고 받고하는 사이라 할 수 있다. 한사람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취한다. 처음 몇 페이지와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어 보면 누구나 다 쉽사리 마놀린의 애절한 사랑에 쌓인 산티에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84일간의 부어(不漁)라는 악운에 시달린 산티에고는 마놀린의 정신, 물심양면의 원조를 받게 된다. 기진맥진한 노인에게 소년은 확신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식사를 날라다 주며, 야구 기사에 관해서 노인이 읽을 수 있도록 신문을 가져다 준다. 85일째의 출어(出漁)가 시작되는 날의 이른 새벽에 마놀린은 졸린 눈을 비벼가며, 연유 깡통으로 커피와 간단한 아침 식사를 노인에게 날라다 주며, 노인이 나중에 낚시 미끼로 쓸 신선한 다랑어와 정어리까지 구해다 준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노인의 태도 또한 인간의 참된 우애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노인은 이러한 원조가 조금도 비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조차없이 태연히 받아들인다. 노인이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는 일을 도운 다음, 소년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배를 이번에는 행운을 신고 돌아오기를 빌며 목송(目送)하는 장면은 애절(哀絶) 그대로의 광경이다. 사경(死境)으로 떠나는 부친의 배를 목송하는 아들의 그것과 다를것이 없는 애절한 광경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고난이 끝난 후 침대 위에 엎드려자는 노인의 그 가련한 모습을 보고 소년은 단장(斷腸)의 슬픔으로 노인에게 줄 커피와 먹을 것을 가지러 테레스관으로 간다. 그것을 묘사한, 한페이지 반 동안 <올다>라는 말이 네 군데나 나온다. 이것은 그 <올다>속에 간직된 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큰 것이다. 이처럼 소년이 노인에게 퍼붓는 마놀린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사랑은, 노인과 마알린과의 사투가 벌는 동안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독백, <여기 소년이 있으면 좋겠다.>를 통하여 전개된다. 여기에서 산티에고는 주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고 마놀린은 받는 사람의 위치에 서 있다. 이 독백이 노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노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일이다. 그러고 보면, 그것은 젊음에 대한 동경을 외치는 결과일지도 모른다. 마놀린이 그 부모의 명령에 거역하여 배를 따라 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홀로 바다로 나온 노인은, 그 85피트나 되는 거어(巨漁) 마알린을 낚은 후 얼마 동안은 낚시줄과 씨름을 해야겠다고 한 노인이 입에서 비로소 <나에게 소년이 있으면 좋겠다>의 독백이 새어나온다.

그러나 곧 그의 투지는 돌처럼 굳어진다. 바다에서 하룻밤을 새워야 하는 첫날밤이 이속해지자, 노인의 입에서는 두 번째로 이 말이 새어 나온다. 그날밤 늦게 새벽녘에도 독백하고는 마음을 다시 채찍질 한다.

노인의 다음 독백의 상징을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노년에는 혼자 있을 것이 아니다> 또는 <온 세상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나는 너무도 멀리 갔다. 온 세상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나는 너무도 멀리 갔다. 온 세상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그 결과 마알린을 상어떼에게 빼앗기게 되자 <이렇게까지 멀리 나올 것이 아니었다. 고기야> 하고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 이 상징의 의의에는 인간의 고립된 개인주의를 참회하고 인간의 상호의존을 신뢰하는 인간애의 연대정신을 동경함을 내포하고 있다. 상징의 의미는 노인이 귀로에 오를 때, 즉 작품의 후반에 이르러 점점 짙어진다. 항구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짙어간다.

마알린과의 싸움도 끝나고 승리가 노인에게로 오자, 이 결과는 노인의 입에서는 얼마 동안 새어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귀로에 오른 노인이, 마알린을 죽인 것이 죄가 아닐까 하고 죄와 고뇌의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상어떼가 암흑의 물 속에서 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 다시 소년의 이미지는 노인의 머리에 떠오른다. 결국 노인은 <모든 것이 무슨 방도로든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죽인다. 고기잡이는 나를 살려 주지만 그만큼 또 나를 죽이기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이제 나를 살려둔다>하는 것은 고기잡이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사랑과 그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그 어떤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닌 소년이라고 믿는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노인은 오막집에서 잠을 깨고 소년과 이야기 하면서, 정말 소년이 그리웠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기 배에 도로 오겠다는 것을 완강히 거절했던 노인이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자기 배로 다시 오겠다는 소년의 제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멀리 바다로 나가겠다는 말은 아예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간의 연대책임과 상호의존의 테마를 작가는 몇 개의 상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처음 예가 야구의 이용이다. 노인은 야구를 잘알고 있고, 그것을 사

랑할 뿐만 아니라, 늘 야구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한다. 야구란 말할 것도 없이 고도로 발달한 단체경기로 이 경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정신이 요망된다. 즉, 이것이 선수 상호간의 연대책임과 사랑과 겸양과 상호의존 등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노인은 <이제는 야구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독백하지만, 야구시합에 대한 생각이 마알린과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 동안에도 즐기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대리그전에서의 매일 매일의 결과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노인이 야구를 생각할 때 그것과 동시에 언제나 그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디마지오의 모습이다. 디마지오는 유명한 뉴욕 양키즈팀의 유격수이며, 노인이 그를 숭배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노인이 디마지오에게 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디마지오의 부친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어부였다는 점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는 동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의 관심을 끄는 것은 디마지오가 그의 발꿈치에 신경통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화려한 선수 생활의 마지막 수년을 끝까지 장식했다는 사실이다. 노인에게 디마지오는 위대함을 성취하는 인간이라는 상징을 갖는다. 그렇기에 노인이 위기와 곤란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디마지오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디마지오는 노인에게 힘과 활력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의 절대적인 방향의 구실을 한다. 마알린과의 장시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노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마알린, 또 한구석에는 디마지오가 떠오르는 이유를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인한 의지력이 밀받침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해양의 세계가 아무리 넓고 험하더라도 바다를 사랑하고 이해하면서 바다와 하나가 되어 바다를 우리들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양개척”의지와 “친화”사상이 근본에 뿌리를 박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는 투혼의 의지력이야말로 “해양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 거대한 자연을 이겨내고 개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과 자연을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연과 동일시하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자연을 배척하고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숨을 들이키고 강렬한 햇살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연과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구어낸 수많은 성과들은 모두 우리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모험을 해서라도 한가지 자기가 목표한 일에 꾸준히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한다. 산티에고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이다. 하지만 그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그것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강인한 의지력으로 그일을 해내었다. 해양개척도 마찬가지이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산티에고의 항해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긴 항해겠지만 그것은 다름아닌 우리들의 뚝인 것이다.

“해양개척”의지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좀더 가까워지고 자연을 유용하게 이용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바다를 보며 바다의 숨결을 늘 함께 느끼고 있는 나로서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중의 하나이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바다는 내 인생에 있어서의 광대한 무대가 될 것이다. 산티에고가 거대한 고기를 잡기 위해 보여준 그 불굴의 의지력을 본보기 삼아 바다속으로 깊숙이 나의 낚시줄을 드리운채 그 낚시줄에 걸린 것이 무엇이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길고 긴 항해를 계속할까 한다.